

PUBLIC ART | 퍼블릭아트

JULY 2024

PUBLIC ART NEW HERO

2024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 진행 정일주 편집장 · 이미지 작가 제공

시각예술의 역량 있는 현대미술 작가를 소개하는 <퍼블릭아트 뉴히어로>전이 K&L Museum과의 공동 주최로 7월 5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제6회를 맞이한 올해 전시는 동시대 미술계를 이끌 작가 29명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회화, 조각, 설치, 영상 작품으로 구성된 폭넓은 문화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진도유망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조망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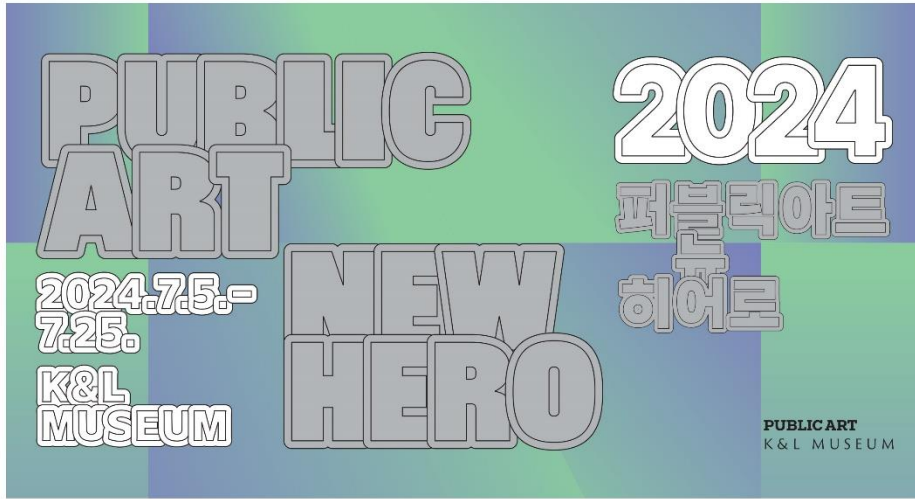
예술에 다각도로 접근하는 작가들의 진정한 작업세계를 비추는 전시는 한국 미술계를 이끌 차세대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살피는 기회이자 예술가와 전문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는 자리로써 미술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준비를 마쳤다.

퍼블릭 & 테크
Public & Tech

K&L Museum 2023 Gwacheon, South Korea © William Mulvihill

PUBLIC ART | 퍼블릭아트

JULY 2024



새로운 그리고 더 훌륭한

「퍼블릭아트 뉴히어로(PUBLIC ART NEW HERO)」의 '뉴(NEW)'는 전에 없던 것이 최근에 생겨거나 만들어졌거나 도입된 것을 뜻하는 '새로움'에 방점을 찍는다. 대체로 그것은 '젊음'이나 '청춘'을 가리키는 '영(Young)'에 집중하는 것이라 여겨지지만 애초 「퍼블릭아트」는 인생의 나이 또는 시절과 상관없이 동시대 다양한 실험 속에서 새로운 문화예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주인공들을 찾아 부각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조직했다.

동시대 가장 창의적이고 유망한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2007년이나 어느새 열여덟 살이 되었다. 사람으로 따지면 주인공들조차도 나오고 선거도 가능한 나이,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이 도약해야 하는 때다. 프로젝트가 탄탄한 노하우와 역사를 갖추는 동안 공모에 뽑힌 작가들을 초대해 선보이는 전시는 2-3년 간격으로 총 5번, 우수 기업 혹은 기관과 협력으로 개최됐다.

그리고 드디어 <제6회 퍼블릭아트 뉴히어로>전이 K&L Museum과의 공동 주최로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K&L Museum에 마련된다. 전시에는 2021년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곡인찬·김민정·김채란·박관우·윤석원·이민선·임지민을 비롯해 2022년 김원진·언해피서짓·장입규·최민규·최지환·허수영·홍세진, 2023년 김영규·김정은·김현석·김희수·노현탁·서성협·이우철, 2024년 권다예·김영찬·김지민·이덕중·이진형·임은경·조영각·황정

현까지 총 2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한국 현대미술을 이끌 이들의 회화, 입체, 설치, 영상 등 여러 장르의 신선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동시대 다양한 실험 속에서 새로운 문화예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각각의 작품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산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한다. 또 그것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코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작품의 이미지 못지 않게 작품에 반영돼 나타나는 내용이 주목되는 전시다.

「퍼블릭아트」가 2007년부터 창의적이고 유망한 작가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진행해 온 공모 프로젝트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배출된 총 160명의 작가는 국내외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퍼블릭아트 뉴히어로」는 국적, 학력, 경력, 수상경력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 작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포트폴리오는 물론 관련 텍스트(명문, 작가 노트 등)에 기재된 이력표기를 삭제해 철저히 작업만으로 심사한다. 1차 포트폴리오 심사 후 선정된 작가들을 대상으로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진행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 전원에게 <퍼블릭아트 뉴히어로>전을 비롯 국내외 주요 기획전에 초대 및 추천하는 혜택이 주어지며, 대상 1명에게는 상장 및 순수 창작지원금이 수여된다. 또 매달 한 명씩 월간 「퍼블릭아트」에 작가로 소개된다.



<제1회 2010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외부 전경



<제4회 2017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전시 전경



<제2회 2013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외부 전경



<제5회 2021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전시 전경

「퍼블릭아트」와 2023년 개관한 K&L Museum은 미술계 네트워크와 제반 시설을 공동 활용하며 긴밀하게 작가와 소통하고 필요 정보를 교환하는 등 업무 협력을 구축했다. 두 기관은 <퍼블릭아트 뉴히어로>전을 통해 시각예술에 각각도도 접근하는 작가들의 작업세계를 소개함으로써 미술 문화 저변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전시 개최에 대해 백동민 「퍼블릭아트」 발행인은 “장르와 매체를 넘나들며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는 다양한 층위의 작품들을 만나는 전시”라며 “예술의 경계를 보다 확장하는 동시에 지금의 융복합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실험적인 차세대 한국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마주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성민 K&L Museum 관장은 “작품을 관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가와 미술계 전문가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폭넓은 예술 문화를 공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교류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선사하는 지역 사립미술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퍼블릭아트」는 앞서 2010년 예술마을 헤이리와와 「파주 헤이리 판 페스티벌」 협업을 시작으로 2013년과 2014년 블루스퀘어 복합문화공간 NEMO, 2017년 재능문화센터 JCC크리에이티브센터, 2021년 청주시립대 청호미술관에서 <퍼블릭아트 뉴히어로>전을 열었으며 경기도미술관, 경기 창작센터,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등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21

<p><PUBLIC ART NEW HERO>전 연혁</p> <p>제1회 2010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2010.9.3 - 9.26 파주 헤이리 판 페스티벌 헤이리 내 15개 갤러리</p> <p>제2회 2013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2013.5.3 - 5.23 인터파크씨어터 복합문화공간 블루스퀘어 NEMO</p> <p>제3회 2014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2014.4.30 - 5.16 인터파크씨어터 복합문화공간 블루스퀘어 NEMO</p> <p>제4회 2017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2017.12.5 - 12.17 JCC아트센터</p> <p>제5회 2021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2021.3.16 - 4.11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p> <p>제6회 2024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2024.7.5 - 7.25 K&L Museum</p>
--

PUBLIC ART | 퍼블릭아트

JULY 2024



- 1 객인턴 <조각 교차로 1> 2023 예진, PLA, 시멘트, 아크릴릭, 수성 페인트, 아이소 톱크, 우레탄폼 95x63x151cm
- 2 김민정 <굴목길로 난 창> 2022/2024 16mm 필름 디지털화 6분
- 3 김채민 <안아서 어르는 조각> 2024 플라스틱 점토, 석분점토, 예폭시, 나무공, 호두나무, 예크플렉스0080실리콘, 아이플러그.1402실리콘, 강화식고, 영랑아크릴폼, 스펀지, 용광막대, BB탄출알, LED조명, 야우이노, 릴레이, 모니터, 헤드폰, 상급제일 비디오 80x50x48.8cm 1분 23초 이미지계급, 이로부터유권 사진, 총칭기 연주 김석중 표표마, 김석중, 이영수 사운드, 서예민 환급치약제분 (후한국문텍스점근상인구센터 서수연 영상, 김용현 기술도움, 김준서 제작지원, 아로크미술관
- 4 박관우 <스무닝> 2023 포개진 모양으로 놓인 두 개의 헤드폰에서 작게 흘러나오는 두 개의 다른 플레이리스트 가변 크기



- 5 윤석민 <나만한수칙의> 2024 캔버스에 유채 130x130cm
- 6 이민선 <물집처럼물집> 2023 실리콘, 석고, 가죽, 바퀴 55x63x40cm
- 7 임지민 <잘못 적어 밀린 답들>(부분) 2020 캔버스 보드에 유채 25x25cm 168개

2021 PUBLIC ART NEW HERO

객인턴

과거의 잔여물을 재구성해 현재의 조각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작가는 미술사에 서술된 회화와 조각을 자유롭게 해체해 새로운 조형을 실험한다. <조각 교차로 1>은 과거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던 두상 조각이 받침대가 된다. 두상 안면부의 거대한 구멍(터널)은 다양한 종류의 조각들이 교차하는 통로이자 문으로 설정된다. 기존의 두상 조각을 관통하는 유기적 선들은 도로 교차로를 참조하면서 제작된 것이다. 이 교차로 위의 조각들은 근래 10년 동안의 몇몇 작품들이 작은 조각으로 다시 조형되어 뒤엉킨 시간의 흐름으로 복잡하게 재구성된다. 이는 언제나 더 큰 교차로가 뒤따라 위치하는 타입인 셈이다.

김민정

영상 매체의 물질성과 광학적 특성에 연관된 사회문화적 맥락의 구조를 탐색하는 작가는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에세이 '나방의 죽음(The Death of the Moth)',(1942), 나쓰메 소세키(Natsume Soseki)의 '풀베개(草枕)',(1906)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단편 '굴목길로 난 창'(Das Gassenfenster),(1913)을 배경으로, 이들을 화자로 설정한 작품을 선보인다. 영상 매체가 새로운 기기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안적 어택이자 틀린 '레터박스(letterbox)'와 그것을 포함한 창문으로서의 '프레임(frame)'에 주목해 사회에서 개인의 상황이 조율하지 못한 채 충돌하게 되는 감정과 적응 과정을 영상에 담는다.

김채민

몸의 기억을 간직한 것들로 작품을 만들으로써 조각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실험하는 김채민.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란 질문에서 이 작품은 출발했다. 눈에 보이는 정보를 넘어 우리는 때로 만지는 행위나 빛의 크기 등으로 대상을 '본다'고 여긴다. 아기를 달래듯 들어 올려 양말로 천천히 흔들어 보는 작품은 보이지 않는 조각의 내부를 조각한다는 생각으로 완성됐으며 잘 보이지 않는 조각 내부는 작은 구멍을 통해, 움직임에 의해 재료들이 마찰하는 소리로 그 형태와 재료를 유추할 수 있다. 촉각과 소리 등의 정보로도 조각을 감상할 수 있음을 피력하는 작품은 조각을 감상하는 방법적 차원을 확장시킨다.

박관우

'현상'으로서의 인간을 주요 화두로 놓고 이주와 정체, 감각을 통한 의식과 자의식을 돌아보는 작가의 2023년 작품 <스무닝>. 포개진 두 개의 헤드폰에서 작게 흘러나오는 두 개의 다른 플레이리스트 작품은 구성된다. 두

사람이 나란히 한 방향을 보며 옆으로 누워 있고 있는 자세를 뜻하는 '스무닝'을 제목으로 채택한 작업은 감싸듯 서로 중첩된 조형이 쉬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헤드폰에서 들리는 소리는 헤드폰을 쓴 사람을 위한 소리다. 우리에게 그 소리가 들릴 수는 있지만, 그 소리는 우리가 들을 것을 전제로 나오는 소리는 아니다.' 복잡한 단한 작품이 지금 당상의 눈앞에 있다.

윤석민

작가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평소 기록하고 수집한 사진 자료를 기반으로 작업한다. 2018년 시작된 연작 '사슴 없는 곳'은 판문점 내외부, 아전병원, 종근기자, 미사, 구호동, 중립지역 표시, 재건 등 한국 전쟁 기록 사진들을 바탕으로 완성된 회화다. 전투와 무관한 기록 이미지를 편집하고 가공하는 연작은 열악한 환경

에서도 각자 할 일을 절차에 따라 해나가는 모습을 담담히 그려낸다. 이는 이 시대 예술가로서 자신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일까에 관한 작가의 고민과 다름없다. 그림을 그려 죽어가는 이를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어쩌면 죽으려 막으려는 사람이거나, 누군가를 죽이려는 이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이민선

보통의 캐스팅 공장에서, 거푸집은 1-2cm의 두께로 내 용물을 만든다. 그러나 텀 비어 있음을 들릴세라 섬금하고 무지마지하게 쌓아 올린 거푸집으로 작품은 완성된다. 조각을 만들 때, 과정의 일부일 뿐 결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푸집을 작가는 하나의 결과물로 제시하며 관념에 소소한 균열을 낸다. 그는 말한다. "의미가 깊고도 깊어 무거울 정도인 물질을 캐스팅했다. 그 물질을 덮는 거푸집은 내용물보다 두껍고 무겁다. 심지어 속 땅깅이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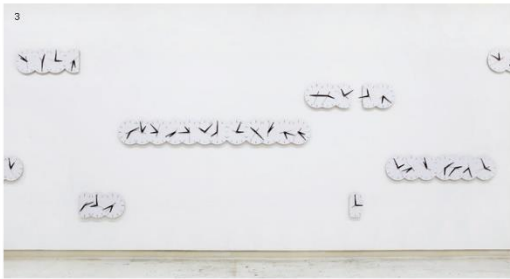
질 부재한 상황에서, 두 쪽의 거푸집은 어엿이 무거운 물질이 되어 미련스럽게 그 공허를 지킨다."

임지민

작품은 시인 이병철 시 '파문,(2017)의 한 구절에서 영감 받아 완성됐다. "잘못 적어 밀린 답들은 / 어느 시인의 집 앞에 보이게 버려질 것이다" 시의 마지막 구절이다. 작가는 현재를 사는 자신이 적어 내려가고 있는 답안지가 있는데, 과거와 미래의 불만이 자꾸 끼어들어 와 그 답들이 계속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고 그렇게 밀려난 답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모아보면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렇게 25cm의 정방형 도화지에 연속해 그림을 그렸고, 168점의 그림이 한 벽에 모여 작업은 완성됐다. 서정적인 작가의 작업은 관객적으로 하여 금 스스로 삶의 경험을 빚고 다양한 감정을 떠올리게 만든다.

PUBLIC ART | 퍼블릭아트

JULY 2024



1 김원진 <Dancing Notation - The Folded Night We Saw (무보름 - 정된 밤)> 2024 정지예 채색 112x290cm
2 안해피서킷 <사람의 언어와 삶에 대한 우주언어인류학적 데이터> 2023 디지털 프린트 230x136cm
3 장민규 <timeline(lock)> 2021 디지털 프린트, MDF, 시계부품 가변설치



4 최민규 <59초를 위한 동력기> 2024 모테, 알루미늄, 나무, 3D 프린트, 라이프. 55인치 TV, 2D 애니메이션, 비디오 플레이어 69초 가변 크기
5 최지원 <A Nocturnal Village> 2024 캔버스에 유채 112.1x162.2cm
6 허수영 <무제 33> 2024 캔버스에 유채 145.4x227.3cm
7 홍세진 <그림자가 되는 선> 2023 캔버스에 유채 50x60cm



2022 PUBLIC ART NEW HERO

김원진

작가는 물양전환 기역과 순간의 잔상이 '너와 나'라는 관계 안에서 문학적 구조로 해석되고 드러나는 과정을 고민한다. 또한 오류와 공백에도 지대한 관심을 품는다.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매개체, 일기의 한 페이지나 가장 좋아하던 옷의 조각과 단추 같은 특정 순간을 남겨둔 조각들을 모아 기록된 앞면과 흔적으로 드러난 뒷면을 교차한 작업은 순간이 쌓인 개인의 역사를 가시화하려는 시도다. 자칫 무용해 보이는 행위의 반복이지만 작가는 이 수행적 노동이야말로 시간을 드러내기 가장 적합한 행위라고 여긴다. 그는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단서들이 새로이 매워진 오류의 풍경이자, 그 자체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공간임을 역설한다.

안해피서킷

과학과 예술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융합하는 안해피서킷의 작업은 언어학, 인류학, 생태학, 미래학 그리고 우주론을 아우른다. 그런 그가 이번엔 인간의 언어와 삶을 세계 지성체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개발하고 이를 우주로 전송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람의 언어와 삶에 대한 우주언어인류학적 데이터>를 선보인다. 외계지성체가 지구의 옛 노래인 <노를 지어라>의 가사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일종의 언어 사전을 구성한 것이다. 이 다학제적 프로젝트는 12살 아이부터 63세 노인까지 총 8명의 남녀가 돌림노래 형식으로 부른 녹음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주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외로운 존재들 사이의 '우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애쓴다.

장민규

일상의 공극증과 호기심을 토대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로 인해 질문거리를 던져 놓는 작가가 영상 편집의 문법을 아날로그 시계(사물)와 결합, 제작한 <timeline (clock)>을 선보인다. 작품은 편집형 영상(시간의 덩어리)들의 부분을 잘라 내거나 덧칠하고 필요한 부분을 합쳐 하나의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타임라인바(timeline bar)를 모티브로 한다. 각 시계의 태엽 소리와 시곗바늘이 서로 부딪치며 나는 소리 또한 작업의 일부로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적 요소까지 더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시각적 지각이나 인식에 환기를 제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뒤에 생각이 덧붙게 하는 작가 특유의 작품이다.

최지원

매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그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선택한 정보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는 동시에 과연

놓친 부분은 없는지에 관한 정무적 판단까지 작동시켜야 한다. 작가는 휘발성 이성, 전달 과정, 가치판단, 모호해진 본질의 의미 등 미디어 공간 속 뉴스와 정보가 지닌 속성이 끊임없이 생성, 소멸, 재생성 되는 시간을 미디어 설치로 완성한다. 빠르게 도는 동력기를 통해 '생산-편집-송출' 과정이 무한정으로 반복되는 프로세스를 드러내는 작품은 물질적, 시공간적 제약을 탈피한 미디어 속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영역을 발견케 한다.

최지원

낯은 도자 인형의 이미지를 수집해 여러 인공 또는 자연 물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작가는 몇 해 전부터 푸른빛으로 물든 법공기를 붙잡기 위한 탐구에 매진해 있다. 심해를 담은 짙은 푸른색이 깊은 슬픔이나 존재의 무상함을 연상시키며 고유한 분위기와 심적인 평온함을 전한다고 믿는 그는 그것을 자신이 경험한 인상적 순간들을

수면 위로 이끌어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묘하게 조급색 다른 인상의 얼굴들은 작가 앞에 현존하기보다 대부분 평면에 머무는데, 이는 그의 회화가 현실적 차원의 기록이보다 삶의 의미와 본인이 처한 세계를 이해하고 자하는 상징적 행위의 결과물임을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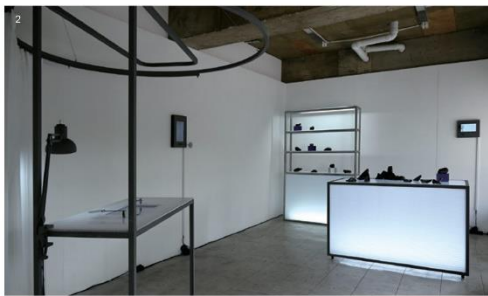
허수영

회화와 대상 속으로 끊임없이 기회를 틈타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감으로써 그림을 무엇이라 규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도달시키려는 작가는 이를 통해 레이어의 누적으로 형성되는 시간이 고유의 회화가 되길 바란다. "자연은 어떻게 그려야 할까? 회화의 이 오래된 질문 중 하나에 대해 "실제로 겹으며 풍경을 보듯이 셀 수 없이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한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답을 내놓는 작가는 서로 다른 것들이 공존하는 모습이길 바라며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화폭에 심

듯 그린 그림을 선보인다. 그것은 결국 자연을 묘사한 것이 아닌, 자연 그 자체이고자 함이다.

홍세진

보청기와 인공의우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라진 청력 세포를 반도체나 기계장치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계가 만들어 내는 소리'와 '자연 그대로의 소리' 사이에는 차이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결 모양의 조각, 잘근잘근 철망, 길쭉한 선, 거대한 반원형 등 시각적 요소들로 나뉘는 조형 요소를 탐구한 작업은 물감을 통해 대상을 흐리게 하거나, 덮고 글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이는 실제 세계와 마음의 퓨파인더 사이에 끊어진 정보의 여백을 새로운 조각, 형태로 매워 나가는 것이며 작가의 청각적 경험을 시각 이미지에 비유함으로써 자연과 인공, 감각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다.



1 김영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2024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피코닉 실형영상) 싱글채널 비디오 19분 19초. "연말1억미술작가되는법, p. 132, 32권 기념설치
2 김정은 <overlay mapping> 2024 스틸, 폴리카보네이트, 미디어패널, 미디어패널 필름렌즈, 모터, led, 아크릴, 레진, 우레탄도색 가판설치(210x150x130cm, 128x66x85cm)
3 김현식 <대인지-체인-이교라> 2023 혼합재료(아이폰, 스틸스텐, PC, 케이블, PVC 정착 시트), 5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0분 (반복) 크기 가변, 언리미티드

2023 PUBLIC ART NEW HERO

김영규

실 새 없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미술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미술 사이의 틈을 살피며 고민을 거듭하는 작가는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되 감동과 재미도 선사하려 애쓴다. 미술관 오디오리움에서 라이브로 진행한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 작품은 한 인물이 읊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 자신의 서사를 기반으로 놓고 완전히 허구로 짜인 스토리를 통해 김영규는 각자 정의하는 미술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토록 유도한다. 작품의 주인공 일명 '미술왕'은 특정한 유니버스에서 전국을 돌며 강의를 한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길이 맞는지 묻는 작품은 관람객의 전두엽을 환기한다.

김정은

자신의 이동을 습관적으로 기록해 모은 경로와 동선을 시각화한 '맵핑(Mapping)'은 김정은 작업의 주요 요소다. 그것을 통해 완성된 지도는 '인간이 새롭게 해석한 풍경' 이랄 수 있고, 인간이 존재하는 시점의 사회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overlay mapping>은 작가의 이동 경로와 경험을 시각적으로 기록한 것. 지도는 고정된 지리적 정보를 나타내지만, 움직임은 조각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짐으로써 유동적인 경험을 표현하고, 현실과 가상, 현재와 과거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상징한다. 이는 작가의 이동 경험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김현식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비선형적 계보에 주목하는 작가는 동시에 시각문화에서 발견되는 사용자의 재현적 특

성과 기술 메커니즘의 관계를 놓고 그들을 분석해 가치를 논하는 맥락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데이지-체인(daisy-chain)'이란, 국화꽃을 엮은 문지를 뜻하며 마치 체인처럼 연이어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IT 용어로는 직렬 형태로 연결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데이지 체인' 방식과 고대 그리스 토론의 광장인 '아고라'의 개념을 결합한 작품은 고고학자, 디자이너, 철학자, 컴퓨터 과학자, 인류학자로 구성된 가상 석학들의 사울과 인류상에 대한 담화를 담는다.

김희수

창작의 본질과 진실을 향한 삶의 태도를 담구하는 작가는 '시간'과 '존재의 조건'을 주제로 작업한다. 최근 빛을 담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 사유의 영역을 넓히는 그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남미 볼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의 녹색 광산을 촬영했다. 대자연의 기후



4 김희수 <S.S.S Explorer> 2023 4K 비디오, 바이노컬 사운드 12분 54초
5 노현덕 <불산> 2024 캔버스에 유채 162x130cm
6 서성협 <기림비 #01> 2022 합판에 먹, 유채, 스틸, 목소리 Andrzej Ja Wilek 250x245x275cm
7 이용철 <전망> 2023 싱글채널 비디오 5분 24초



를 이겨내며 빛의 변화와 현지 퍼포먼스의 기록과 시간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 제목 'S.S.S Explorer'의 Salt, Snow, Summer는 불변의 소금 사막에서, 녹아내리는 눈 같은 신체 움직임에 관한 연구를 상징한다. 지구 반대편에서 매서운 추위와 뜨거운 태양을 하루에 경험하는 것은 기본 적에는 세계 사이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노현덕

자연재해 같이 거스르기 어려운 힘부터 사회나 경제, 정치처럼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보이지 않는 힘까지, 그것 앞에서 충돌하는 인간의 욕망과 심리를 좇으며 연구하는 작가. 작품 <불산>은 2005년 황우석 박사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그는 산신행과 구성을 차용해 사회 구조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욕망과 불안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대인들의 비이성적 믿음을 회화로 표현했다. 믿지 못한다는 의미와 불을 관찰하는 신이라는 두 가

지 의미를 담아 '불산'이라 제목 지었으며 질감을 강조한 브러시 스트로크에 그림자를 더한 표현은 풍성한 공간을 형성한다. 그림 속 인물 또한 실제 실감을 지닌 듯하다.

서성협

서로 다른 매체가 공유하는 보편적 감각을 뒤서는 '위상학적'에서 파생된 '위상감각'은 서성협 작품의 근간이다. 최근 훈종이라는 키워드에도 주목하는 그는 매체와 형식의 혼합을 실험한다. 커다란 방파제가 놓였다. 테트라포드와 도리스식 주두가 합쳐진 조형은 작가의 개인 서사를 텍스트와 현실 영상으로 변환해 새겨 넣은 기림비 연작 중 하나다. 제주에서 나온 자연 작가에게 바다는 낭만과 여유가 아닌 경계이자 한계였고, 물의 마지막이자 바다가 시작하는 자리엔 방파제가 있었다. 방파제가 위치한, 매 순간 변용되는 바다와 땅의 경계 공간은 물론 장소를 점유하기 위해 서로의 어깨에 기대 대면하는 형

태까지 그것은 많은 것을 담고 또 더 많은 것을 피력한다.

이용철

5분 24초 영상 <전망>은 1970-1980년대 중동권 국토 개발계획을 위해 노동자로 파견됐던 작가 아버지의 체험을 바탕으로 특정 사건들과 그 현장에서 수집한 중동의 열기를 품은 오브제들에 의해 완성된다. 당시 중동 상황과 그 이야기 너머에 존재하는 다종의 욕망을 상상케 만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들이 교차하는 장면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새로운 미래를 뜻하는 '네움(Neom)',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 중심으로 그는 '세계 경제의 패권', '왕권 강화', '개발도상국의 노동 자원', '광물 자원' 그리고 '전쟁' 등 국가와 인간의 욕망까지 감춰진 이면을 낱알이 드러낸다.

PUBLIC ART | 퍼블릭아트

JULY 2024



1 권다예 <Printer. 4.08.>
<Printer. 4.08._result> 2023
순지에 잉크 C.Y.M 외 혼합재료 가변 크기
(마크딜 상자 가로, 세로 100cm).
순지에 잉크 C.Y.M 각각 75x145cm
2 김영진 <What you want in life> 2022
포토그림, 종이접기, 종이사신,
피그먼트 프린트 150x120cm
3 김지민 <침묵의 선 No.126> 2024
캔버스에 수묵채색, 금속막
162.2x112.1cm
4 이덕중 <모아비테> 2021
음료수 병, 제작과정 비디오 10분 45초
가변 크기

2024 PUBLIC ART NEW HERO

권다예
회화의 재료는 물론 그림 그리는 과정을 나열하고 설치화를 시도하는 그는 시간에 기반을 둔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현재를 뚫으며 작가로서 작업에 관한 고민과 개입하는 영역을 실험한다. 그로 인해 주체와 작업자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가 선보이는 작품은 그리기의 자동화와 상상하며 작업한 'Printer' 시리즈 중 하나다. 그림의 과정을 나열해 보고 그리는 행위를 물감의 점도, 건조되는 시간 차이, 번짐의 모양 그리고 종이나 캔버스 종류를 대체해 보여 작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점차 줄여나갔다. 계산된 입력값으로 출력하는 프린터에서 입력값 없이 생성된 색이 중첩되면서 영키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전에 없는 시도인 셈이다.

김영진
주변 사물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그것이 지닌 사건

과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는 작가 김영진 자신을 둘러싼 사회 속 예기치 않은 사고를 비롯해 존재했거나 사라진 것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표면으로 도렸지만 드러나지 않는 잠재된 것들의 관계성을 이미지와 조형적 시의 형태로 작업한다. <What you want in life>는 내면에서 부유하며 여러 갈래로 중첩되어 풀리지 않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시작했다. 종이사신, 종이접기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빛과 사물과 감광지판을 사용해 사물을 찍어내는 고전기법 포토그램(Photogram)으로 완성한 화면엔 우리가 살면서 바라보는 여러 단어가 숨어 있다.

김지민
다양한 문화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나간 문명에서 글픈 향수를 느끼는 불분명한 형태의 감정과 그 기원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작가. 그는 여러 국가로부터 파생된 역사, 신화, 언어 등의 교차 융합 시점을 다국적 고전과 매체가 접목된 설치 작업 '프로토타입 템플(Prototype

Temple)' 시리즈로 재현한다. <침묵의 선(Line of Silence)>은 '프로토타입 템플'의 연속적 배경이 되는 작품이다. 주로 <침묵의 선> 회화와 <움직이는 상동리(Moving Chandeller)> 설치를 통합해 무대적 연출을 도모하는 김지민의 시리즈는 어두운 밤에 방영해 지나간 것들의 메아리를 듣는다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이덕중
이덕중은 시스템과 그 경계를 연구하고 관찰하며 그 안에서 발견된 허점이나 빈틈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변형해 들어갈 수 있을지를 사색한다. 작품 <모아비테(Moa-beate)>는 베를린의 비상용 우물의 물을 상품화하는 사회 비판적 프로젝트다. 작품의 중심이 된 물은 베를린 모아비트(Moa-bit) 지역의 8번 우물에서 펌프로 끌어온 후 자체 소독, 여과 과정을 진행해 IFP 연구소에서 수질 검사를 마쳤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물을 다시 끓인 후 아이스티로 만들었으며 전시 동안 그것은 'Moabeate' 라벨을 달고 진수장에서 판매된다.



5 이진형 <무제(0505)> 2023 캔버스에 유채 112.1x162.2cm
6 임은경 <자각몽>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 162.2x130.3cm
7 조영각 <일착취제 2-그린 인플루언서> 2024
딜러님 프래임워크(SDXL, 티보, LCM 로라), 텍스트 데이터(번형 LLM), 아크릴압축액자, 모디터/상급채널 비디오 13분 33초 4K 27.9x40.6cmx32EA 28인치(65x40x15cm)
8 황정현 <off-the-record (01-03)> 2023 캔버스에 혼합재료 가변 크기

이진형
이미지를 수집하고 그것이 지닌 분위기의 질감과 구조적 윤곽 등을 부분적으로 포착한 후, 내용이나 의미를 지워 없애는 회화적 실험을 한다. 복잡하고 예민한 작가는 모야 높은 이미지의 형태를 바라보고 형상이나 지표 같은 부수적인 것들이 탈각된 후 남겨진 온전한 감각에 주목한다. 그리고 생김새를 평면 위에 적역하기보다 색채 혹은 분위기를 통해 드러내는 작업을 한다. 침착된 원본의 의미를 모조리 소거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속에서 의도치 않게 생성되어 의미를 편향시키는 카테고리를 해제하고 정립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만이 남을 때까지 걸러내 본다. 이는 이미지 언어인 회화를 어떻게 눈에서 바로 읽어내지 못해 드러낼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이다.

임은경
휴머니즘이 전제된 비판, 외면에 대한 서술보다 심리와 감정에 관한 천착. 이 명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임은경은 복잡한 사회, 개인의 경험, 현대인의 심리 등을 회화로 표출

하고 보는 이에게 공유한다. 그런 그가 매일 꾸는 자신의 꿈을 바탕으로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의 작품처럼 낯설고도 익숙한 화면의 <자각몽>을 완성했다. 불변의 가치인 시간도 꿈 같은 무의식 속에 선 쉬이 변하거나 별거 아닌 것임을 드러내고자 달리의 녹아내리는 시계를 차용한 것. 꿈 같은 초현실주의와 고정불변의 자유로운 시간 사이에 갇혀 있던 젊은 비로소 임은경에 의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조영각
인간과 기계, 사물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기술과 사회, 문화 같은 다른 층위가 접촉하는 지점에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작가. <일착취제 2-그린 인플루언서>는 식물과 융합된 인간들이 사물, 음식, 움직임, 해방촌 등에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풍수 회의 4대 개체(해바라기, 사과, 금전수, 모란(작약))과 결합된 그들은 각자의 페르소나를 통해 현대 사회의 트렌드와 문화를 과시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인간의 욕망과 소비 문화가 자연을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현상을 풍자한다. 또한 작품은 현대인의 삶이 자연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역설한다.

황정현
황정현은 자신을 이미지 편집자이자 스토리를 연출하는 감독 그리고 머릿속 대상들을 관촬하는 유일한 독자인 동시에 이를 밖으로 꺼내 다른 관람객에게도 전달하는 중개자라 일컫는다. 그가 선보이는 '연대', '전쟁', '갈등(판타지)'을 제목으로 한 작품 속 인물들은 사회가 가진 기존 콘텐트들에서 느껴지는 전형적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미온 동시에 프랑스처럼, 또 웃기도 록 잔혹한, 복합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들이다. 이들의 만남을 기념하고자 사진기를 들면서 벌어지는 비공식적인 사건의 시퀀스를 틈틈이 기록한 것이라고. 이 비현실적이고 동성적인 이미지는 우리의 현실을 내포한다. 22